10.15686/fkl.2025..65.6 OPEN ACCESS

1980년대 초 성 산업 르포 속의 여성들
-『어둠의 딸들』,『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을 중심으로

안화영
주저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현주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확장·분화하는 성 산업 시장과 이동하는 여성들
3 현장 속으로 잠입한 여성 작가들
3.1 ‘여성 르포라이터’가 취하는 이중적 거리감과 그 한계
-유재순의 경우
3.2 서술자의 유동적 위치성과 기지촌 여성의 재의미화
-강석경의 경우
4 동료, 언니, 선배, 생존자, 베테랑-성 산업 속 다면적 행위자들의 발견
5 나가며

이 논문은 2024년 2월 20일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제33회 콜로키엄 발표문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발표 기회를 주신 비교사회문화연구소와 토론자 나보령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국문초록

본고는 르포집『어둠의 딸들』(1981)과『서울서 팔리는 여자들』(1983)을 대상으로 성 산업에 대한 서사적 시각과 재현방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두 르포집은 성 산업이 경제, 문화, 국제 관계 등의 층위와 교직되면서 기지촌이나 집결지를 넘어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로 급속하게 확대되는 양상을 취재하고, 그 안팎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경계를 횡단하는 다양한 여성 집단을 조명한 의의가 있다. 이때 취재기법과 서술방식에서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 사이에 차이가 드러난다. 남성 작가들이 외부적 관찰자로서의 보고에 머물렀다면, 여성 작가 강석경과 유재순은 현장 내부로 잠입하여 당사자와 밀착된 서사를 만들어냈다. 강석경과 유재순의 르포는 1인칭 서술자의 위치 변화에 따라 목격자 증언, 자기 고백, 취재대상과 거리를 둔 논평 등이 혼재된 복합적인 서술양상을 보인다. 한편 이들의 르포는 성 산업 속 여성들을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도 생존과 안전을 위해 다면적 전략을 모색하는 행위자로 형상화하여 도덕주의적 관점과 피해자 서사에서 벗어난다. 본 연구는 두 르포집이 1980년대 초 성 산업의 확산과 함께 변화한 여성들의 위치를 기록한 중요 사례이자 르포르타주 양식의 변용·확장을 보여주는 실험적 텍스트임을 밝힌다.

국문핵심어: 성 산업, 르포,『어둠의 딸들』,『서울서 팔리는 여자들』, 강석경, 유재순

1 들어가며

한국에서 논픽션 텍스트가 광범위한 독서 대중과 만나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다. 1965년에 복간된『신동아』를 필두로『여성동아』,『주간한국』,『주간경향』,『선데이서울』 등의 잡지는 심층기사, 수기, 르포 등의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류 언론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중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들 잡지의 논픽션 공모는 전문 작가가 독점하고 있던 글쓰기의 영역을 개방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 회사원, 공장 노동자, 버스 안내양, 구두닦이, 넝마주이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필자들이 수기와 르포, 전기 등을 써냈고, 현장감과 흥미를 갖춘 이야기들은 널리 공감을 얻었다.[1]

1970년대 논픽션의 부상을 주목한 연구들은 대개 수기에 집중했는데,[2] 이 시기에 르포 양식이 변용·확대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3] 문학장 안팎에서 기존의 문학, 특히 전문 작가에 의한 리얼리즘 소설이 당대 민중의 소외된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심화됨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는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현장을 취재하고 보고하는 '현장소설', '르뽀소설', '르뽀', '기록문학', '실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4]

---

1 1960-70년대 논픽션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성환, 「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신동아』 논픽션 공모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2권, 상허학회, 2011a; 이봉범, 「잡지미디어, 불온, 대중교양 —1960년대 복간 『신동아』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7호, 한국근대문학회, 2013 참조.

2 1970년대 수기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 김나현, 「모빌리티 노동의 정동 —도시 모빌리티와 1970~80년대 '버스 안내양'의 정동」, 『사이間SAI』 제3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김성환, 앞의 글, 2011a; 김양선,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 여성문학(사)의 외연 확장과 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 『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노지승, 「1970년대 성노동자 수기의 장르적 성격과 글쓰기의 행위자성」, 『서강인문논총』 제52호, 인문과학연구소, 2018;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여공 수기와 소설에 나타난 자기 정체화와 문학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제4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등이 있다.

3 홍성식은 논픽션 양식에 관한 기존 연구가 수기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르포 일부를 부차적으로 다루었으나 수기와 르포는 글쓰기의 주체와 형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식, 「서발턴에 대한 진실한 기록, 1970년대 르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401쪽.

4 위 용어들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혼용되었다. 김정환, 「문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80년대 대표평론선2』, 김병걸·채광석 편, 지양사, 1985b; 임헌영, 「아슬아슬한 흥미와 박진을」, 정을병 외, 『현장소설: 사건 속에 뛰어든 인기 작가 17인집』, 여원문화사, 1979; 임헌영, 「80년대 소설의 지평」, 『80년대 대표평론선1』, 김병걸·채광석 편, 지양사, 1985a; 채광석,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앞의 책, 1985b. 이러한 문학적 흐름에 관한 연구로 허선애, 「지식인의 현장이라는 역설: 1970년대 현장소설에 나타난 재현의 (불)가능성」, 『비교한국학』 제30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참조.

뒤이은 1980년대는 이른바 르포의 전성기를 열었다. 황석영, 박태순, 조세희 등 주요 소설가들이 르포 양식을 적극적으로 실험했고, 무크지 운동을 통해 수기, 공동창작과 더불어 르포가 성황을 이루었다. 르포 전문 무크지 『르뽀시대』, 『르뽀문학』이 창간된 것도 주목할 변화이다.[5] 비평가들은 르포가 사실성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문학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6]

이 같은 흐름에서 '성 산업'[7] 관련 르포가 활성화되었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현암사, 1980)은 서울의 시장 뒷골목, 성매매 집결지, 판자촌 등을 배경으로 도시하층민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는데, 텍스트 전체로 보면 서술자인 이동철의 체험 수기가 주축이지만 2-4장과 6장에서 양동·도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의 내부를 서술하는 데는 르포의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었다. 특히 형사, 포주, 건달 등이 얽힌 집결지의 지하경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부분과 그 안에서 착취당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구술 채록의 형식으로 전달한 부분은 르포적 성격이 강했다.[8] 『어둠의 자식들』에 원천 서사를 제공한 이철

---

5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 —1980년대 무크지 운동 재고」, 『동서인문학』 제45호, 인문과학연구소, 2011;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제37호, 한국시학회, 2013;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6 르포에 대한 기대는 '소설 침체론'과도 맞닿아 있었다. 소설 침체론은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 소설이 질적·양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소설 독자의 상당 부분을 사회과학, 논픽션에 넘겨주고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었다. 김도연, 「장르 확산을 위하여」, 앞의 책, 1985b; 김정환, 앞의 글, 1985b; 임헌영, 앞의 글, 1985a; 홍정선, 「70년대 비평과 80년대 비평의 전개 양상」, 앞의 책, 1985a 참조.

7 '성매매 행위'나 '성판매 여성'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 및 행위자를 명확히 지목하는 용어로서,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성매매의 구조를 구매-판매의 대면적 거래로 축소하는 문제가 있다.(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 휴머니스트. 2022, 85-90쪽.) 이 글에서는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성 산업(sex industry)'과 '성 산업 속 여성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 김성환은 『어둠의 자식들』 4장이 성 산업 속 여성들의 사연을 요약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서술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는 데 주목하며, 이철용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구술, 채록

용이 “술집 여자들도 자기들 이야기라고 해서 안 읽은 사람이 없”더라고 언급했던 일이나,[9] 영화 「어둠의 자식들」(이장호 연출, 1981)이 4장 ‘카수 영애’에 관한 에피소드를 발췌하여 제작되었던 것을 떠올리면, 당시에 이 텍스트가 성 산업 현장에 관한 보고로 널리 읽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충격 고발’, ‘잠입 르포’ 등 자극적인 표제를 단 성 산업 관련 르포들이 주간지, 스포츠지, 여성지, 연예지에 게재되거나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인기를 끌었다.[10]

그러나 1980년대에 성 산업을 조명한 르포들은 문학계에서 진지한 비평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대표적으로 비평가 김정환은 1970년대 최인호, 조해일 등의 ‘호스티스’ 소설이 말초적, 관음증적 섹스 묘사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당시의 르포들이 ‘밑바닥 민중’의 삶을 조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결론에서는 이 르포들이 소재주의와 말초적 자극이라는 한계로 인해 ‘삼류문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11] ‘운동’으로서의 르포와 ‘상품’으로서의 르포를 나누는 이러한 관점은 이 시기의 르포 텍스트를 다룬 최근 연구에도 일정 정도 이어지고 있다. 『어둠의 자식들』은 르포 양식의 부상을 1970-80년대 사회운동 및 문학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려는 연구들 안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자리를 잡았지만,[12] 이후에 활발히 유통된 성 산업 관련 르포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하고 이후 황석영이 다시 정리,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일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김성환,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4호, 한국현대문학회, 2011b, 375-378쪽.

9 최일남, 「인간탐방: 「어둠의 자식들」의 주인공 이동철씨」, 『신동아』 제209호, 신동아일보사, 1982.1, 94쪽.

10 최은아, 「1980년대 르포라는 재현 양식과 시대적 의의」, 『구보학보』 제25호, 구보학회, 2020, 196쪽.

11 김정환, 앞의 글, 1985b, 320쪽.

12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성환, 「하층민 서사와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 -1980년대 논픽션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59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배하은, 앞의 글, 2017; 안화영, 「1980년대 도시하층민소설 연구 —‘내부의 난민’ 형상과 ‘난민-시민’을 향한 상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유승환, 「황석영 문학의 언어와 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에 성 산업 현장을 재현하는 르포가 부상한 장면을 좀 더 자세히 톺아볼 필요가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 중 하나인 『어둠의 딸들』(이진우 편, 문교사, 1981)은 제목 자체가 『어둠의 자식들』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르포(9편)와 수기(4편)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그것이 수행한 양식 실험을 이어받고 있다.[13] 르포 6편의 필자가 문인이며,[14] 엮은이인 소설가 이진우와 이경자가 『현장소설: 사건 속에 뛰어든 인기작가 17인집』(여원문화사, 1979)에 참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책에 실린 르포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위 '현장'과 접속하려고 노력했던 작가들의 양식적 탐구의 산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이 하층 남성 청년인 이동철의 체험적 이야기(수기)를 주축으로 하고 부분적으로만 여성들에 대한 재현을 수용했다면, 『어둠의 딸들』에 실린 13편 중 10편의 수기와 르포는 도시 하층 여성, 특히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세계를 초점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어서 성 산업과 그 안의 여성들에 대한 르포적 재현을 더욱 본격화한 것은 유재순이었다. 유재순은 난지도 쓰레기장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르포 「난지도를 찾아서」(1981)로 『신동아』 논픽션 공모전에 당선된 후 다양한 소재로 르포를 발표했으며, 그것들을 묶어 출간한 첫 번째 르포집이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나남, 1983)이었다.[15]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16] 전체 22편 가

13 엮은이 이진우가 본문 앞에 필자와 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두세 편은 잡지에 이미 소개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초출 지면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또 『어둠의 딸들』이 1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는데, 본고는 한 편의 글 안에 필자가 2명인 경우를 따로 세어 총 13편으로 보았다.

14 『어둠의 딸들』에 르포를 수록한 문인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민윤기(閔允基)는 1966년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유민』(1974)을 출간한 뒤 『주부생활』 등 여성지의 편집주간을 역임했다. 이진우(李振雨)는 196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바람난 벽돌』(1979) 등 소설집을 출간했다. 조순애(趙順愛)는 1970년 시집 『소복』으로 데뷔하여 『겨울을 사는 법(1979) 등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했다. 박석수(朴石秀)는 1971년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술래의 노래』(1976) 등 시집과 창작집을 출간했다. 이경자(李璟子)는 197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강석경(姜石景)은 1974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했다.(등단순서로 정리함)

15 유재순(柳在順)은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1983)을 시작으로 『벌거벗는 여자들』(1986) 등의 르포집을 출간했고 르포소설 『여왕벌』(1984), 『난지도 사람들』(1985) 등을 발표했

운데 표제작인 「서울서 팔리는 여인들」을 포함한 10여 편의 르포가 성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것이었다.[17]

본고는 1980년대 초 성 산업 르포 속의 '여성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2장에서는 먼저 『어둠의 딸들』과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이 성 산업이 직접적으로 성을 거래하지 않는 다른 시장들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분화·확장되는 세태를 보고하고, 이 시장들의 경계를 횡단하는 다양한 여성 집단을 포착한 점에 주목한다. 3장과 4장에서는 여성 작가 강석경, 유재순이 웨이트리스, 외국인 현지처, 상경 소녀, 파출부 등으로 위장 잠입하여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르포에 초점을 맞춘다. 3장에서는 잠입 르포에서 서술 위치의 조정이 불러오는 효과에 주목한다. 남성 작가들의 르포와 비교할 때 두 작가의 르포는 성 산업 현장과 당사자들에 더욱 밀착된 1인칭 서술자를 내세우는데, 서술자의 위치 변화에 따라 목격자 증언, 자기고백적 서술, 취재대상과 거리를 둔 논평 등이 혼재된 복합적인 서술 양상이 나타난다. 4장에서는 강석경과 유재순의 르포가 성 산업 속의 여성들을 폭력적인 구조 안에서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생존과 안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나가는 행위자로 형상화함으로써 기존의 도덕주의적 관점과 피해자 서사를 넘어서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2 확장·분화하는 성 산업 시장과 이동하는 여성들

다. 1986년에는 제2회 올해의여성상을 수상했다. 유재순의 르포 활동을 정리한 글로는 김순천의 「[한겨레21 르포상] 살아남은 르포작가의 슬픔」(『한겨레21』 제715호, 2008)이 있으며, 본고는 80년대 초반에 발간된 유재순의 첫 번째 르포집을 그 이전의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딸들』과 연결하여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후의 저작은 추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16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194쪽; 365-368쪽.

17 최은아는 1980년대 초반에 상업적, 선정적 르포들이 흥행했던 국면에 주목하고, 이 르포들이 지닌 '잘 팔리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은 곧 당대 대중의 욕망에 성공적으로 부응한 결과였다는 재독해의 가능성을 제기한다.(최은아, 앞의 글, 2020) 최은아의 연구는 유재순의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을 주요 사례로 언급함으로써 본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도 1980년대 초반의 성 산업 르포에서 '상업성' 혹은 '운동성'과 같은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문학적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호황, 통행금지 해제, 올림픽 개최를 앞둔 풍속영업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1980년대 초에 성 산업은 호황기를 맞았다. 성 산업은 기지촌이나 집결지 같은 특정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마사지업소, 이발소, 증기탕 등 음식·숙박업을 주업종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뻗어나갔다. 성 산업의 전체 규모는 계속 확장되었다.[18] 『어둠의 딸들』과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에는, 이진경의 말을 빌린다면, 이와 같이 서로 구별되면서도 얽혀 있는 성 시장의 경계를 횡단하는 다양한 여성 '이주자'의 형상이 나타난다.[19] 『어둠의 딸들』에는 기지촌의 웨이트리스, 호스티스, 접대부, 여공, 이발소 면도사, 다방 레지 등 다양한 직종의 하층 여성이 등장한다.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에는 걸인, 해녀, 외판원, 가정부에서 기업의 비서, 여고생, 여대생, 그리고 사우나와 헬스클럽을 즐기는 중산층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더 폭넓은 여성들의 세계가 다뤄진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재현 대상은 성 산업에 종사하거나 그 경계에서 '성'을 판매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이다.[20]

『어둠의 딸들』 맨 앞에 실린 민윤기의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랴」[21]는 "술집 작부,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의 호스티스, 비어홀 웨이트레스, 현지처, 생맥주집이나 변두리 다방의 레지, 변두리 여인숙을 근거로 한 콜걸 겸 윤락녀"(36) 등 성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시대적 조류'를 묘사한다. 이진우의 「생의 위험한 길목」 역시 성 산업의 확장과 변화를 취재하는데, 특히 이 산업이 '직업소개소'를 매개로 전국적 규모로 확대된 양상을 주목한다. 이 글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여성들을 "동두천, 의정부, 춘천 등 미군 기지촌"이나 "지방업자들과 연결해 지방으로"(80) 유인하는 '위험한 길목'이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조차 이 같은 '인신

18 1980년대 초 성 산업의 확장에 관해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255-289쪽을 참고.

19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103쪽; 167-177쪽.

20 본고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으나, 『어둠의 딸들』에 수록된 수기의 필자인 호스티스, 이발관 면도사, 다방 레지 등도 직접 성 산업에 종사하거나 그 경계를 오간다.

21 민윤기,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랴」, 이진우 편, 『어둠의 딸들』, 문교사, 1981. 앞으로 이 르포집에 수록된 글을 본문에 인용한 경우, 출처는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매매’ 행위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73)[22]

이진우가 보고한 성 시장의 실태는 『어둠의 자식들』에서 인신매매가 포주, 건달 등 소위 뒷골목 세계의 일원이나 무허가 ‘악덕 소개업자’에 의한 범죄 행위로 재현되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직업소개소는 일종의 ‘직업 복덕방’에 비유된다. 복덕방이 더 많은 구전을 얻기 위해 “덩치 큰 고가매물”을 주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소개소는 “임금 단위가 높고 인원 회전이 빠른 서비스 업종의 중개”를 선호하며, 따라서 “다방이나 술집, 요정, 또는 윤락가와 유사한 장소”(71)가 선택되는 것이다. 르포는 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일간지 신문의 구인광고, 서울 도심에 자리잡은 직업소개소, 각종 서비스업 등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경제 영역과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모습을 들춰낸다.

유재순의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은 성 산업이 분화·확장되는 양상을 더욱 포괄적으로 탐사한다.[23] 표제작인 「서울서 팔리는 여인들」은 “허구 많은 매매(賣買) 중에 왜 하필이면 여자 시장(女子市場)이 서는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며,[24] 뒤이은 「일급 여비서」, 「남자여행에 길든 빗나간 철새들」, 「2호부인 아파트촌」, 「여대생 호스티스」, 「바이어 비서」, 「청량리역 0시 50분」, 「호스티스 운전사」, 「심야의 여인들」, 「고독한 여인들의 도시」, 「여고생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총 11편의 르포는 여성들을 사고파는 다종다양한 시장들이 복잡하게 위계화

22 공식적으로 허가된 직업소개소는 1967년 직업안정법이 개정되면서 탄생했는데, 무허가 소개소가 난립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이진우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무허가 소개소가 여전히 성행하고, 허가된 소개소 역시 성 산업의 길목으로 자리잡은 상황을 비판한다.

23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에 수록된 르포 22편은 크게 세 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 ①성 산업과 관계를 맺는 여성들을 다룬 계열, ②중산층 여성들의 소비, 유흥문화를 다룬 계열, ③도시 서민과 하층민, 탄광촌이나 어촌의 여성을 다룬 계열이다. ①계열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11편이 해당된다. ②계열에는 「살빼는 여인들」, 「쑥탕의 여인들」, 「서울, 야간관광버스」 등 3편이 포함되며, ③계열에는 「쓰레기를 먹고사는 난지도 사람들」, 「약속의 땅은 있는가」, 「바람속에 웅크린 사람들」, 「바닷속에서 삶을 캐는 갈매기들」, 「파출부」, 「파도를 넘는 또순이들」, 「스파이—엘리베이터걸」, 「과부촌」 등 8편이 포함된다. 마지막에 수록된 「죽음, 그 길목에서」는 르포라기보다는 장례 풍습을 정리한 기록에 가깝다.

24 유재순, 「서울서 팔리는 여인들」,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 나남, 1983, 11쪽. 앞으로 이 르포집에 수록된 글을 본문에 인용한 경우, 출처는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재순은 기왕에 성 산업의 장소로 운위되던 집결지나 기지촌을 초점화하는 대신, 성 산업이 더 넓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서울서 팔리는 여인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여자라는 신체 조건 하나로 서로 각기 다른 시장"에서 매매된다.(25) 소위 '인간시장'이라 불리는 동광시장은 '무작정 상경'했거나 서울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여성들이 다방 레지, 작은 술집의 접대부와 같은 일자리를 구하러 모여드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노상에서 서류 작성도 없이 계약이 성립"(24)되는데, 이는 종종 여성들이 성 산업에 진입하는 입구가 된다. 한편 명동·무교동·영동 등 서울 중심가의 다방은 소위 '마담'이 연예인 지망생부터 비서, 대학생에 이르는 특등급, A등급 여성들을 구매자와 연결해주는 또 다른 여자시장이다. 이곳의 거래에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기생관광'이나 '현지처' 알선도 포함된다. 유재순에 따르면, 여자시장'들'은 "서울·부산·대구·수원·의정부·동두천을 비롯한 전국에" 점조직 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바람잡이의 마담 숫자와 일반 중개 여인들의 수는 전국에 약 2천5백 명. 서울이 2/3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대구가 그다음으로 많다."(14-16)

또한 유재순은 공식적으로는 성 산업의 '외부'에 있지만 그 산업과 유무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도 취재한다. 「일급 여비서」와 「바이어 비서」는 건설회사, 종합상사에 고용된 비서들이 회사에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32) 등에서 온 구매자를 상대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태를 밝힌다. 「호스티스 운전사」는 손님과의 성매매를 '부업'으로 행하는 여성 택시기사를 취재한다. 외국인 구매자에게 성 접대를 하기 위해 애초에 유흥업소의 호스티스나 연예인을 고용했던 것이 점차 회사의 내부인력으로 대체된 사정과, 택시회사 고용주가 "입금액을 꼬박꼬박 내놓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런 류의 여기사들을 환영"(246)하는 사정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붐, 경제성장과 서비스업의 팽창에 의해 성 산업의 경계가 재편되는 양상을 폭로한다.

앞서 언급한 11편의 르포 외에, 도시 서민이나 하층민, 중산층 여성들의 소비·유흥문화를 다룬 르포들 역시 성 산업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파출부」는 유재순이 유흥업소 여성들이 사는 집에서 파출부로 일했던 경험을 다루며, 「과부

촌」은 생계고를 겪는 독신 여성들이 대리모('씨받이')가 되는 사례를, 「서울, 야간관광버스」는 관광버스가 '보이헌팅'이나 '걸헌팅'의 장소로 변형된 사례를 취재한다.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에 수록된 22편의 르포는 언뜻 보기에 특별한 기준 없이 무작위적으로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구성은 역설적으로 "여자들의 세계"(322)를 수많은 시장'들'의 모자이크로 재구조화한다. "심장과도 같은 요충지"(11)인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 곳곳에서, 서로 구별되면서도 얽혀 있는 시장들에서 대기업의 비서는 '바이어 비서'가 되고, 서울 중심가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은 비밀요정으로 스카웃되고 다시 일본인 현지처가 되며, 이혼하거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파출부, 가정부, 외판원으로 일하거나 '박카스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변두리 다방에 취업했던 여성은 호스티스 일을 시작하고, 호스티스에서 택시 운전사로 전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3 현장 속으로 잠입한 여성 작가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어둠의 딸들』과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은 1980년대 초 확장·분화하는 성 산업과 그 안에서 이동하는 여성들을 취재하고 보고한다. 두 르포집의 중요한 특징은 여성 작가들이 창작에 참여했으며, 특히 이들이 위장하고 성 산업 현장에 잠입하여 취재한 결과물을 수록했다는 점이다.[25] 유재순의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에 수록된 22편의 르포 중 6편은 그가 비서, 일본인 현지처, 상경 소녀, 파출부 등으로 위장하고 취재한 내용을 서술한다.[26] 『어둠의 딸

25 본고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어둠의 딸들』에 수록된 이경자의 「일주일 동안의 공장일기」 역시 공장으로 위장 잠입한 경험을 쓴 것이다.

26 「일급 여비서」는 유재순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한 대기업에서 비서로 근무한 경험을 담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바이어 비서'의 실상을 다룬다. 「남자여행에 길든 빗나간 철새들」은 영동·한남동에서 '일본인 현지처'로 행세하면서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출부」는 파출부로 위장하여 호스티스들의 일상생활을 목격한 경험을 다룬다. 「청량리역 0시 50분」, 「심야의 여인들」은 서울역·청량리역·용산역 등에서 상경 청소년으로 위장하고 인신매매 현장을 취재한 것이다. 「고독한 여인들의 도시」는 남산·북악산 일대를 지나는 택시·차량을 상대로 박카스를 판매하며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들』에 실린 「기지촌의 아메라시안」의 후반부는 강석경이 소설의 취재를 위해 20여 일 동안 송탄 기지촌에서 생활하며 기지촌 여성들과 어울리고 직접 클럽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경험을 담고 있다.[27] 그런데 두 여성 작가의 르포는 남성 작가인 민윤기, 이진우, 박석수의 그것과는 서술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어둠의 딸들』에 수록된 남성 작가의 르포는 현장답사를 바탕으로 성 산업과 그 속의 여성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랴」에서 민윤기는 취재하면서 방문했던 지역과 업소명,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생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진우의 「생의 위험한 길목」은 서울 중심가의 유흥업소나 미군 기지촌, 외딴 섬으로 팔려갔던 여성들 12명과의 인터뷰를 수록하면서 그들이 직업소개소를 매개로 성 산업에 유입된 경로를 제시한다. 「기지촌의 아메라시안」의 전반부를 쓴 박석수는 송탄 기지촌의 미군홀 16곳에서 일하는 '양색시'와 남자 종업원들의 수입, 주거형태와 근무환경 등을 밝힌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을 취재한 작가의 존재는 텍스트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며, 서술의 시점은 현장 외부의 관찰자에 고정되어 있다. 르포가 활용하는 자료들도 현장 외부의 시점에서 기술된 텍스트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민윤기의 글에는 신문기사, 학술논문, 정부 보고서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개인화된 서술은 취재대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여 서술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지만, 이 거리감은 종종 성 산업 속 여성들의 상태를 '무질서', '오염', '타락'으로 단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낙인과 타자화는 르포집의 제목인 '어둠의 딸들'이라는 호명 자체에 이미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이기도 하다. 호명의 기저에는 이 여성들을 '여성이 마땅히 속해야 할 자리'로부터 일시적/영구적으로 이탈한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 결국 세 남성 작가의 르포는 한국문학이 남성적 응시/감시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

그들과 같은 분장을 하고 경험한 일을 기술한다.

27 강석경이 취재한 장소는 'K읍'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송탄에 위치한 오산 미군부대 기지촌이었다.(「'84년에 건다 ⑫ 강석경 〈소설가〉」, 『매일경제』, 1984.01.30, 9면.) 이후 강석경이 발표한 소설 「낮과 꿈」(1983), 「밤과 요람」(1983)에는 이 르포의 에피소드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르포에서 소설로의 변환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을 통해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티를 '호기심'의 대상이자 '문제적'인 것으로 만들고, 특히 성 산업 속의 여성들을 상징적으로 추방해온 작업을 연장한다고 할 수 있다.[28]

반면 강석경과 유재순의 르포는 1인칭 서술자 '나'를 채택하는데, 이들은 '목격자(witness)'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르포의 보고는 자신이 현장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사건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한 당사자들의 언술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성 산업을 내부에서 증언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는 남성 작가들이 취재대상의 신원정보를 세부적으로 나열하거나, 논문, 기사, 보고서 등 권위 있는 텍스트를 참조하거나 인용하면서 성 산업을 객관적 서술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의 사실성, 현장성을 구성한다. 이때 당사자의 언술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목격자 자신의 분석과 판단이라는 매개를 거쳐 전달된다는 점 역시 주요한 특징이다. 르포의 서술자는 당사자들과 밀착된 위치와, 거리를 확보한 채 당사자를 분석, 논평하는 위치 사이에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서술자와 취재대상의 거리는 남성 작가들의 르포에서보다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며, 그에 따라 서술 양상도 변화를 겪는다. 아래에서는 강석경과 유재순의 르포가 서술 위치의 조정을 통해 복합적인 서술을 전개하면서 현장감과 리얼리티의 성취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인식적, 미적 효과를 산출하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3.1 '여성 르포라이터'가 취하는 이중적 거리감과 그 한계 -유재순의 경우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에는 변신에 가까운 위장을 하고 현장 구석구석에 침투하는 '여성 르포라이터'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29] 표제작 「서울서 팔리는

28 김은하, 『개발의 문화사와 남성 주체의 행로』, 국학자료원, 2017, 282-283쪽. 노지승은 이를 '성노동자 서사의 한국적 마스터 플롯(master plot)'이라고 규정한다. 노지승, 앞의 글, 2018, 13쪽.

29 당시 유재순은 '르포라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의 표지에서도 그러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문화가 25시 주간 연재 문단의 신생아 르포라이터」(『조선일보』 1984.08.16. 7면)에서는 유재순을 '여성 르포라이터의 대표주자'로 내세운

여인들」에서도 유재순은 여성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취업사기를 취재했는데, 두 편의 잠입 르포 「청량리역 0시 50분」과 「심야의 여인들」은 그가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등지에 60일간 '상경 소녀'로 잠입하여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사건"을 더욱 상세하게 보고한다. 가령 유재순이 서울역에서 만난 "19살 처녀"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몰래 상경했으며 "집 나갔다는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을 것이고 또 임신한 줄 알면 그날로 쫓겨나니까 만약 내려간다 해도 아이는 떼고 가야한다." 유재순은 그 여성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끔 돕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을 배웅했는데(226), 이는 외부에서 작성된 자료나 형식적인 인터뷰로는 포착할 수 없는, 현장에서 목격한 생생한 사실이다.

그런데 몇몇 예외적 대목을 제외하면, 유재순의 르포집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당사자와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유지하는 복합적인 서술 태도이다. 「남자 여행에 길든 빗나간 철새들」에서 '여대생 호스티스'이자 일본 기업가의 '현지처'인 정진수와 대화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예이다.

> 내가 시치미 뚝 떼고 정양에게 존댓말에서 반말로 바꾸어 말을 놓아버렸다.
>
> 「애 넌 왜 그리 앙큼떠니? 난 다 아는데. 그래 누구니? 한국사람? 일본사람?」
>
> 그녀의 집 식탁에서 묻는 나를 어안이 벙벙한 듯 쳐다보더니 얼마 후 물어본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되물어 왔다.
>
> 「그런 넌 실제 직업이 뭐지? 학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
> 「말 놔도 괜찮아. 너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게 관심 둔 거야.」
>
> 「어쩐지 풍기는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 했지. 이런데 소식 환하고 하길래 긴가민가했어. 나이는?」
>
> (착각도 유분수지. 어쩐지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때문에 난 다.

싫어도 여대생 현지처로 분신을 해야만 했다.)

「네가 스물이면 나도 스물이고, 네가 스물다섯이면 나도 스물다섯이야.」

「애 좀 봐, 내가 언니인 것 같은데? 난 58년생이야. 넌?」

「나두」

「거짓말 마라. 많으면 60년생, 적으면 62년생 같은데?」

갑자기 친해져 버린 친구처럼 마구 떠들어 대기 시작했는데 일본인 현지처로 한 달에 4번 서울에 오면 올 때마다 용돈과 생활비를 준다고 했다.(116, 강조는 인용자)

위 대화에서 유재순이 취재대상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은 인상적이다. 유재순이 정진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고, 이어서 "너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속이며 경계심을 무너뜨리자, 정진수는 "갑자기 친해져 버린 친구처럼" 일본인 현지처의 생활에 대해 "마구 떠들어 대기 시작"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정진수를 향해 속으로 조소를 하는 데 드러나듯이, 서술자는 성 산업 속 여성들과 밀착되면서도 그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선다. 이러한 서술 위치는 잠입 취재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지만, 유재순의 르포에 주요한 한계지점으로 작용한다.

우선 서술 위치는 취재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파출부」에서 파출부로 위장하여 호스티스들이 사는 집을 방문한 유재순은 그들의 부엌살림과 책장, 옷가지를 상세히 묘사하고, 방을 뒤져 찾아낸 일기장의 일부를 르포에 발췌하기까지 한다. "본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은 일부러 찾아냈다"(188)고 밝히고 있는바, 유재순의 취재방식은 당사자를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에 가깝다.

여성들에 대한 거리두기와 대상화는 취재를 마친 후의 논평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술자는 종종 성 산업 속 여성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계몽적 논평으로 글을 마무리하는데, 이 점은 앞서 살핀 남성 작가들의 서술과 유사한 양상이다. 「남자여행에 길든 빗나간 철새들」에서는 "삶을 갉아먹다 못해 생을 잔인하게 쪼아먹는 여인들의 순례, 이제 그만 남자여행을 멈출 때가 되지 않았는지

요, 안 그래요?”(124)라고 훈계하며, 「일급 여비서」에서는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정도(定道)의 길인가를 확인”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본분”(49)을 지킬 것을 주문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르포집의 후기인 「르포집에 붙여」에서 서술자와 취재대상 사이의 거리에 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점은 흥미롭다. 후기에 따르면, ‘위장 잠입’은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여 ‘각본 없이 취재’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유재순은 “깊숙이 뿌리내린 줄기는 미처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부화뇌동격”(321)으로 남발되는 르포 기사와 “취재라기보다는 각본을 조립하기에 바쁜” 기자들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은 “좀더 가까이에 서서, 그 잘난 신분증을 들추어 내지 않아도 될 위치에 서서 인간 본연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 취재에 임”하려 했다고 진술한다.(324-325)

> 애써 없는 자의 위치에 서고자 노력했지만 흉내와 아우트라인에 지나지 못했던 나의 이 어설픔. 내가 찾아간 현장 모두가 여자들만의 세계였기에 내게 와닿는 미동(微動) 또한 아주 큰 것이었다. (…) 구석진 자리의 현장을 찾아가는 내 마음은 항상 순수했었다는 자만심이 가득했었다.
>
> 허나, 이런 나의 착각은 결코 그들과 하나의 점으로 일치될 수 없음을 몇 번이고 깨달아야 했다.
>
> 그들과 동화될 수 없다는 것 (…) 그들의 찌든 삶을 십분의 일 정도나마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로 동화될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그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항상 느껴지는 무거운 갭이었다.(322-323)

위 인용문에서 유재순은 여성들과 일치, 동화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자만심’이나 ‘착각’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취재 과정에서 자신과 여성들 사이의 ‘갭’을 극복하기 어려웠음을 토로한다. 그러한 ‘갭’이 자신의 위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자각은 “애써 없는 자의 위치에 서고자 노력했지만 흉내와 아우트라인에 지나지 못했던 나의 이 어설픔”이라는 표현에도 드러나는데, 이는 여성들과 물리적으로 밀착되면서도 심리적, 도덕적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 ‘르포라이터’의 서술 위치가 지닌 한계를 성찰하는 대목으로 읽을 수 있다.

위장 잠입을 통한 취재는 유재순의 르포에서 두드러지는 강점이자 그의 르포를 문제적으로 만드는 부분이다. 르포의 서술자는 성 산업 속 여성들과 물리적으로 밀착된 동시에 심리적, 도덕적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를 이어가는데, 이는 여성들을 정보를 캐내거나 계몽적으로 논평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든다. 한편 르포집의 후기에서 이루어지는 서술 위치에 대한 성찰은 서술자가 취재대상과의 도구적 관계를 탈피할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2 서술자의 유동적 위치성과 기지촌 여성의 재의미화 -강석경의 경우

『어둠의 딸들』에 실린 「기지촌의 아메라시안」은 박석수와 강석경이 쓴 두 편의 르포를 합친 것이다.[30] 하나의 글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르포 사이에서는 뚜렷한 서술상의 차이가 발견된다. 박석수가 쓴 전반부는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기지촌을 민족주의적 의미망 속에서 해석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기지촌은 "무법자의 군화"에 점령당한 "식민지"(127)이자 "우리의 가냘픈 누이들이 인당수가 아닌 양키의 털북숭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심청이의 마을"(130)이다.[31] 박석수는 이처럼 기지촌을 민족/국가의 무능력이 폭로되는 장소로 의미화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외세-점령자-미군에 의해 희생된 '민족의 딸'로 고정한다.

---

30 엮은이 이진우는 '아메라시안(Amerasian)'에 대해 "펄벅이 지은 이름으로서 미국계 한국인, 즉 혼혈아"를 이른다고 설명하는데, '아메라시안'이 르포의 제목이 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박석수의 르포에 나타나듯이 기지촌의 여성들을 혼종적 존재로 타자화하는 표현일 수 있다.

31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심청'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래된 클리셰이다. 노지승에 따르면, 심청전의 근대적 개작 과정에서 심청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벌어오는 딸이자, "무능한 남성 주체들이 구해낼 수 없어 희생되었던 민족"의 표상이 되었다. 즉 산업화 시기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노동"을 남성들이 더 강인해져야 한다는 요청으로 전유하는 가부장적 서사가 생산되어온 것이다. 노지승, 『여성의 다시쓰기』, 오월의봄, 2022, 196쪽; 215쪽.

박석수가 외부자이자 '누이와 딸을 빼앗긴' 가부장 남성의 위치에서 기지촌을 관찰하고 서술한다면, 강석경이 쓴 후반부는 기지촌으로 직접 잠입한 작가의 위치를 채택한다. 르포의 1인칭 서술자 '나'는 "사회에서 소외된 밑바닥 인생 집단"이면서도 "같은 여자들이라는 동류의식에서" "기지촌 여자들"에게 "막연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전에 취재차 기지촌을 찾았을 때 "골목을 기웃거리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기지촌을 파고들기로 마음먹었다."(137) 그가 기지촌의 내부자가 되어 관찰한 바에 따르면, 기지촌은 "특수경제권"으로 이 안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는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비싸다." 높은 물가는 여성들이 미군에게서 받아낸 달러를 기지촌 안팎으로 순환시키는 기제이자 여성들에 대한 경멸적 인식이 "악이용"된 상술이기도 하다.[32] 기지촌의 경제는 여성들이 포주집, 주민들, 가족들에게 노동과 달러와 미제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작동하는데, 그 안의 여성들은 이들에게 경멸을 받고 이용을 당하면서 "피해의식으로 고슴도치처럼 몸을 도사린다."(141-143)

기지촌의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거쳐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초점화하는 이러한 관찰은 서술자가 기지촌 여성들과 물리적으로 밀착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사전 답사차 기지촌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미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선입관을 싹 씻었다. 나는 여자들과 쉽게 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138-139)고 서술하며, "그곳 여자들과의 접촉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되었"(141)다고 말한다. 한편 서술자는 기지촌 여성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32 원미혜는 "성매매 집결지뿐 아니라 성적 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임대료나 물가가 다른 곳보다 비싸"거나,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처럼 보이는' 여성에게 높은 가격을 받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금기를 어긴' 여성에게 '위반을 묵인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우월감을 읽어낸다. 원미혜, 「늑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 막달레나의 집,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삼인, 2002, 43쪽. 이는 성 산업 속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성 산업의 '외부'처럼 보이는 일상의 구석구석에까지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하긴 내 신분을 속이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 처음 이런데 나오면 정 붙이기가 힘들지, 하고 티나가 말하면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공연히 레코드판을 뒤집어 보곤 했다. 20여 일간 이곳에 있으면서 세 번이나 서울로 훌쩍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달래며 다시 그들 옆으로 돌아왔다. 내게 위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악의가 아니라는 것뿐이었다. 나는 사실 그들을 좋아했으며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듣고 느꼈다. 그들은 여태 내가 보아왔던 어느 누구보다 순수하고 인간적이었다.(142)

위 인용문에 표현된 '괴로움'은 현장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속이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잠입 취재는 "그들과 어울려 오이 마사지를 하고 당구장에도 갔으며 시장을 헤매며 순대를 사먹"은 뒤에 "내 방에 들어와서 그들의 은어와 생활을 놓치지 않고 메모"(142)하는 이중생활의 연속이었다. '나'는 죄책감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스스로를 "위안"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서술은 앞서 유재순이 르포집의 후기에서 잠입 취재에 따르는 내면적 갈등을 토로했던 것과 대비되는데, 강석경은 여성들과 감정적, 심리적으로 훨씬 밀착되어 있다. 즉 "그들 옆으로 돌아"온 행위는 여성들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호감과 이해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호감과 이해는 이들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상대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서술자는 "사람들은 그들[기지촌 여성들: 인용자]을 손가락질하고 동정하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며 당사자들의 발화를 옮기고, "선입견이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위안부의 인생을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누군가"(145)라고 논평한다.

다른 한편 서사가 전개됨에 따라 서술자는 여성들로부터 거리감을 확보하는 위치로 이동하기도 한다. 20여 일의 잠입 취재를 마친 뒤 보건소의 협조하에 수용소(몽키하우스) 내부를 구경하고 패스 단속 현장을 취재하는 장면이 대표적이

다.[33] '나'는 "속칭 토벌이라 불리우는 단속현장은 수사극을 보는 것처럼 진지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나'가 "그들 옆"을 떠나 "보건소 직원들 옆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보"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클럽에 들이닥친 단속반, 도망치거나 붙잡힌 여성들의 아우성, 호송버스에 실려 수용소로 향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수사극'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국가권력(보건소와 수용소)을 정당화하고 질서 회복의 내러티브(범죄→수사→검거→질서 회복)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 물리적 거리는 감정적 소외로 이어지며, 은연중에 여성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로도 연결되고 있다. 서술자는 "전날에도 여자들과 트럼프를 쳤던 나"와 오늘 보건소 직원들 옆에서 여자들을 단속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나' 사이의 거리를 의식하면서 변명이나 자기 위안의 시도조차 없이 "별수 없었다"고 일축한다(146-147).

> 기지촌의 새벽엔 환락의 찌꺼기가 창자처럼 드러나 있다. 이곳의 새벽은 하루라는 해가 뜨기 전의 은밀한 무대가 아니라 밤의 연장이며 광란 뒤의 폐허이다. 나는 뼈속까지 핥듯이 마지막으로 기지촌의 새벽 거리를 헤매고 올 때와 달리 공허한 심정으로 그곳을 떠났다. 갑자기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나에 대해 유나는 「이 바닥엔 쉽게 정을 붙일 수 없지 잘 됐어.」라고 말 할지 모른다. 궁금하고 심심하던 차에 진은 내가 적당히 둘러댄 샤모니 클럽을 기웃거릴지 모른다. 그런 여자가 없었다는 말을 들으면 진은 혼자 중얼거릴 것이다. 「이 바닥에서 누굴 믿겠어!」
>
> 모든 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새벽에도 십불짜리 지폐를 베개 속에 꾸겨넣고 고단하게 자고 있을 그들. 나는 생각 해 보았다. 하루를

33 '단속'은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성병 검진을 받지 않은 여성을 가려내어 수용소로 보내는 절차로서, 단속에 적발되어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것은 장기간의 영업 손실과 인격적 모독, 심각한 고통, 죽음의 가능성까지 의미했기에 여성들은 단속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제49권 2호, 한국사회학회, 2015, 19-22쪽. 김연자의 회고록은 1970년대 송탄 기지촌 여성들이 무허가 진료행위로 인한 사망, 뇌물로 점철된 성병 검진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김연자,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141-158쪽 참조.

위해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를.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웠다. 인생이 무엇이던가를……

(149, 강조는 인용자)

르포의 결론부에서는 다시금 서술 위치의 미묘한 조정이 감지된다. 위 인용문에서 '나'는 기지촌에서 마지막으로 본 새벽 거리의 풍경을 "환락의 찌꺼기", "광란 뒤의 폐허" 등으로 요약하고 있으며, 이때 '나'의 위치는 앞서 '단속 현장'을 바라볼 때의 위치와 동일하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올 때와는 달리 공허한 심정으로 그곳을 떠났다"는 고백은 다시 '나'가 그들에게 가졌던 호감과 애착을 부각한다. '공허감'의 원인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증발을 알았을 때 유나와 진이 보일 반응을 상상하는 것과 직접 연결된다. 서술자가 "모든 여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서 '인생을 배웠다'고 회고하는 마지막 대목은, '위안부의 인생 역시 당당한 인생'이라고 긍정했던 르포의 앞부분과 연결되는 한편, 그들을 뒤에 남기고 서술자가 발을 옮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회상은 동시에 언제나 거리를 확보한 목격자의 관찰, 분석, 논평이기도 한 것이다.

강석경과 유재순의 잠입 르포에서 서술의 위치는 단일하거나 고정적이지 않다. 서술자는 위장 잠입을 토대로 당사자들에 밀착하여 서술하는 한편, 그러한 서술 위치로부터 벗어나서 거리감을 확보하는 장치들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르포 텍스트에는 목격자의 증언, 자기고백적 서술, 권위적 논평 등이 혼재한다.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의 서술이 종종 당사자에 대한 비난이나 계몽적 논평으로 귀결된다면, 「기지촌의 아메라시안」의 서술은 친밀한 관계 맺음과 거리두기 사이를 왕복하면서 성 산업 속 여성들에 관한 재의미화를 시도한다.

4 동료, 언니, 선배, 생존자, 베테랑 -성 산업 속 다면적 행위자들의 발견

3장에서 서술자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4장에서는 르포의 주된 서술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성 산업 속 여성들의 재현 방식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다. 유재순과 강석경의 르포는 성 산업 속 여성들이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

한 '행위력(agency)'[34]을 발휘하는 장면을 포착한다. 즉 르포는 이들을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생존과 안전을 위해 다면적 전략을 모색해나가는 행위자로 형상화함으로써 기존의 도덕주의적 관점과 피해자 서사에서 벗어난다.

「기지촌의 아메라시안」에 서술된 주요 일화는 '나'가 기지촌의 여성들 곁에서 일상을 함께한 덕분에 가능해진 것으로, 여기서 이들은 성 산업 속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재현의 문법을 초과하는 형상으로 등장한다.

> 유나는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생활 했다는데 번뜩이는 눈이 몹시 영민해 보였고, 많이 산 만큼 폭이 넓었다. 티나에게서 간단히 내 소개를 받은 유나는 힛빠리(유객행위)를 하지 말라, 흑인은 상대하지 말라, 지적으로 보이라는 둥, 선배로서 조언을 해 주었다. 또 아는 클럽을 지적해주면서 카운터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
> 유나는 내가 집에 들릴 때마다 팬티 하나만 걸치고 죽은 듯이 잠자고 있었다. 나는 담배를 입에 물려가며 깨웠는데 유나는 이런 나를 조금도 귀찮게 생각지 않고 밥을 해서 먹이기도 했다. 호박만 썰어넣은 된장 찌개가 그토록 맛있을까, 유나 옆방엔 게으름뱅이 영자가 살고 있었는데 티나까지 합쳐 우리는 종종 화투판을 벌였다. 유나는 내가 돈을 잃으면 「저 돈을 먹으려니 부담스럽군」 하며 내 화투를 들여다 보고 대신 쳐주기도 했다. 나는 여장부처럼 걸걸하고 푸근한 유나를 언니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몹시도 좋아 했다.(141-142, 강조는 인용자)

---

34 행위력은 '제약된 조건 아래에서 행사되는 능동성'으로 정의되며, 주체/객체, 개인/구조를 분리하는 근대의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하는 개념이다. 우에노 지즈코에 따르면, 전쟁과 성폭력의 역사에서 여성들은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었지만, 수동적으로 희생당하는 객체도 아니었으며, 생존을 위해 지배 구조에 협력·공모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는 이 복합성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구조로도 주체로도 환원되지 않는 에이전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구조의 폭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그러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에노 지즈코·아라라기 신조·히라이 가즈코 편, 서재길 역,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어문학사, 2020, 40-42쪽.) 'agency'는 보통 '행위자성'으로 번역되지만, 이 글에서는 행위자들이 지닌 '힘(力)'의 측면에 주목하여 '행위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에서 서술자는 잠입 취재를 하는 동안 맺었던 몇몇 여성들과의 관계를 생생하고 섬세하게 기록한다. 르포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이곳 여자들', '그녀들', '그들'처럼 3인칭 복수형으로 지칭되는데, 위 인용문에서처럼 "우리"라는 호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나'는 "하루는 진에게 또 하루는 티나에게", 그리고 두 여성을 통해 알게 된 "유나에게도 번번이"(141) 찾아가면서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우리"란 이들이 모여 구성한 일상적 소집단이다. 이들은 클럽에서의 가명처럼 성 산업이 부여한 정체성이 아닌, '게으름뱅이' 같은 고유한 애칭이나 '언니'로 서로를 부른다. 이는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면서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고 성 산업의 폭력을 버텨나갈 자원을 마련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짤막하게 서술된 '선배로서의 조언'은 이러한 미시적 교류에 내포된 정치적 잠재력을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지성적으로 보이라'는 조언은, 미군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던 '한국', '동양',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성별화되고 인종화된 육체 이미지로 환원되는 것에 저항하는 방편으로 읽을 수 있다. '흑인을 상대하지 말라'는 조언은 기지촌의 인종적 위계에 조응하는 것이지만, 흥미롭게도 '유나' 자신은 흑인 병사와 동거하고 있으며 주변의 다른 여성들 역시 흑인 병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강석경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인종적 편견과 "두려움", "경계심"(144)을 버리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그렇기에 '유나'의 조언은 인종적 편견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기지촌의 먹이사슬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적' 전략으로 읽힌다.[35]

여성들은 "달러 획득 시장"(141)인 기지촌에서 '값싼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지만, 그에 대응하는 나름의 방책을 고안한다.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생존과 안전을 위한 조언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웃'이나 '동

35 캐서린 문에 따르면, 기지촌에 흑인 전용 클럽은 몇 되지 않았으며, 많은 업주와 여성들이 흑인 병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했다. 이는 분명히 인종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이었지만, 미군 내부에 존재하는 인종적 위계에 대응한 '방어적' 방책이기도 했다. 백인들은 수가 많고 구매력이 높았으며, 여성들은 어떤 인종과 어울리는지에 따라 '흑인 색시' 혹은 '백인 색시'로 구분되었고 인종의 경계를 넘을 경우 미군들의 보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캐서린 H. S. 문, 이정주 역,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114-119쪽.

료', '언니', '선배'로 구성해나가는 공동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포착함으로써, 강석경의 르포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기존의 성 산업 관련 서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형상을 부여한다.

한편 유재순의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은 대체로 성 산업 속 여성들을 향해 도덕적, 계몽적 태도를 취하지만,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형상들도 발견할 수 있다. 「파출부」에서 유재순은 파출부로 위장하여 유흥업소 호스티스들이 사는 집을 청소하면서 그들의 직업에 비난의 시선을 던진다. 유재순은 청소 일을 마친 뒤에도 늦게까지 정보를 캐내기 위해 방을 뒤지는데, 때마침 귀가한 호스티스들은 유재순이 귀가가 늦어진 것을 걱정하며 돈을 건넨다. "일당[5천원: 인용자]은 이미 아까 그녀들이 출근할 때 받았고 또 다시 5천 원을 내미니 당황한 건 오히려 내쪽이었다."(189) 유재순은 이들의 친절이 "엉뚱했다"(190)고 기록하는데, 이는 자신이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했던 대상이 도리어 자신에게 "인정 있고 포용력 있는"(191) 태도를 보인 순간에 대한 반응이다. 유재순이 기록한 당혹감을, 호스티스들을 정보를 캐낼 대상으로만 취급하던 시선이 흔들리고 그들을 인간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하는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청량리역 0시 50분」에서 용산역 앞 '상경 소녀'로 가장한 유재순은 "숙박비도 안 받고 밥까지 주어가며 친절을 베푸는"(229) 중년여성을 따라가고, 그곳에서 '이희숙'과 만나게 된다.

> 선참객 셋 중의 하나가 이런 일에 베테랑이었던 것이다. (…) 이름이 이희숙(21세)이라는 여자는 옆사람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작게 얘기해 주기 시작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보이는 그 여자의 얼굴은 제법 예뻤고 손톱에는 보라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
>
> 얼굴색이 누렇게 뜬 그녀는 대구나 부산에도 이와 똑같은 사기꾼이 있어 이곳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일일이 세 사람의 고향을 묻더니 부산이라는 같은 이름의 김희숙(16세)에게는 1만 원, 평택이라고 말하는 이광복(18세)에게는 2천 원을, 충주라고 대답한 나에게는 5천 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가?
>
> 날이 새면 일찌감치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것이다. 내가 그들이 무섭

> 게 감시할텐데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고 물었더니 눈에 띄일 만큼 감시는 하지 않고 다만 며칠 쉬었다 가라는 권유를 끈덕지게 한단다. 그래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다짐을 한 후 도망치라는 것이다.(229-231, 강조는 인용자)

르포는 작은 목소리, '제법 예쁜' 얼굴, 보라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 누런 얼굴색 등 이희숙이라는 인물의 외양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같은 방 안에 앉아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유재순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취재 대상에게 이처럼 선명하고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하는 서술은 유재순의 르포에서 다소 예외적이다. 가령 3장에서 살펴본 「남자여행에 길든 빗나간 철새들」과 비교해본다면, 유재순과 '여대생 현지처' 정진수는 한 방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정진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국한되며 거칠게 묘사되었다. 그러나 「청량리역 0시 50분」은 이희숙이라는 인물의 외양과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서술한다.

그에 따르면, 이희숙은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탈출한 '생존자'이자 그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베테랑"이다. 그가 스스로 인신매매 일당에게 되돌아온 목적은 범죄의 증거를 잡아내어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다. 그 역시 유재순과는 다른 의미에서 현장에 '잠입'해 있는 셈인데, 이야기를 마친 이희숙은 "자신은 끝까지 머물면서 꼬리를 잡겠다"(231)고 다짐하는 한편, 다른 여성들에게는 날이 밝으면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하면서 차비를 쥐어주고 그곳을 빠져나갈 계책까지 알려준다. 즉 자신과 같은 위험에 빠진 여성들을 '후배'로 인식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과정을 미리 알려주고 탈출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희숙의 형상은 기존의 문학적 서사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를 다루어온 방식과 비교된다. 여성들은 흔히 인신매매 범죄 앞에 무기력한 희생자로 그려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이진우의 「생의 위험한 길목」 역시 그중 하나인데, 르포에서 여성들은 갓 상경하여 서울의 생리를 알지 못한 채 제 발로 '위험한 길목'에 들어서며, 그로부터 빠져나올 방법도 알지 못하여 무기력하게 폭력에 노출된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유재순이 묘사하는 이희숙은 인신매매 수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으며 사

회의 “손가락질”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응수한다.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그리된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하면서, 경찰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자신과 “똑같은 경로”(230)를 밟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것이다. 유재순 자신도 다른 르포에서 성 산업 속 여성들을 ‘정도(定道)를 지키지 못한’ 존재로 지목해 왔음을 상기할 때, 비록 한 편의 일화에 불과할지라도, 이희숙의 형상에는 성 산업 속 여성들의 전형적인 이동 경로를 거스르고 성 시장의 입구를 탈출구로 만들려는 벡터가 기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지촌의 아메라시안」, 「파출부」, 「청량리역 0시 50분」은 강석경과 유재순이 성 산업 현장에서 만났던 여성들의 다층적인 행위력을 포착해냈다. 르포 속에서 유나, 진, 티나, 영자, 그리고 세 명의 호스티스와 이희숙은 ‘이웃’, ‘동료’, ‘언니’이자 ‘선배’, ‘생존자’, ‘베테랑’과 같은 다양한 얼굴로 등장한다. 이러한 면모는 성 산업 속에서 단순히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수동적 위치에 머무는 대신에 자신의 생존과 안전, 존엄성을 지키고자 분투했던 여성들과, 현장 속으로 잠입해 들어갔던 르포 작가의 대면이 빚어낸 결실이다.

5 나가며

1980년대 초 한국 사회는 초국적 자본의 유입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 속에서 성 산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성 산업과 합법적 경제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탄생한 르포 『어둠의 딸들』과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성 산업을 바라보는 서사적 시각과 재현 방식을 살펴보았다.

두 르포집에 실린 르포들은 성 산업을 다루는 방식에서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공통적으로는 성 산업이 단순한 불법적·음성적 영역이 아니라 경제, 문화, 국제 관계 등 여러 층위와 복잡하게 교직되면서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포착하고, 기지촌이나 집결지를 넘어 다종다기한 성 시장의 경계를 횡단하는 여성들을 형상화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에서는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남성 작가들이 외부자의 시선에서 객관적 관찰을 강조했다면, 강석경과 유재순은 웨이트리

스, 호스티스, 현지처, 상경 청소년 등으로 위장 잠입하여 현장 내부에서 관찰한 것을 서술한다.

강석경과 유재순의 르포에서 서술의 위치는 단일하거나 고정되지 않는다. 서술자는 위장 잠입을 토대로 당사자들에 밀착하여 서술하는 한편, 그러한 서술 위치에서 벗어나 거리감을 확보하는 장치들을 마련한다. 서술 위치의 변화는 서술자가 취재대상에 대해 갖는 물리적, 심리적, 도덕적 거리감을 조정하고, 르포 텍스트에 목격자 증언, 자기고백적 서술, 권위적 논평 등이 혼재되도록 만든다. 유재순의 르포가 종종 당사자에 대한 분석적, 계몽적 논조로 귀결된다면, 강석경의 르포는 친밀한 관계맺음과 거리두기 사이에서 왕복한다.

흥미로운 점은 두 작가 모두에게 잠입 취재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을 넘어, 성 산업 속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강석경은 기지촌 여성들이 일상적 관계 속에서 구축해 가는 연대를 포착했으며, 유재순 역시 일부 르포에서 성 산업 속 여성들이 구사하는 행위력을 포착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성 산업 속 여성들은 단순히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수동적 위치에 머무는 대신 '이웃', '동료', '선배', '생존자', '베테랑'과 같은 관계적 자아를 구성해나가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는 성 산업 속 여성들을 단순히 무기력한 희생자, 혹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로 규정했던 기존 서사와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결론적으로 『어둠의 딸들』, 『서울서 팔리는 여자들』은 1980년대 초 한국 사회에서 성 산업이 확장·분화되었던 과정을 보고하고, 그 안에서 여성들이 적응하고 생존해나갔던 방식을 문학적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현실을 포착하고 재현하기 위한 실험적 양식으로서 '르포'가 1980년대 초에 겪었던 변용과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후 두 작가는 르포를 바탕으로 소설 창작으로 나아가는바, 이들이 소설과 논픽션을 넘나드는 시도를 통해 탐색한 서사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더욱 진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이진우 편,『어둠의 딸들』, 문교사, 1981.

유재순,『서울서 팔리는 여자들』, 나남, 1983.

『매일경제』,『신동아』,『조선일보』,『한겨레21』

단행본

김병걸·채광석 편,『80년대 대표평론선1』, 지양사, 1985a, 161-185쪽; 295-320쪽.

_____,『80년대 대표평론선2』, 지양사, 1985b, 84-106쪽; 239-266쪽; 309-332쪽.

김연자,『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141-158쪽.

김은하,『개발의 문화사와 남성 주체의 행로』, 국학자료원, 2017, 282-283쪽.

노지승,『여성의 다시쓰기』, 오월의봄, 2022, 196쪽; 215쪽.

막달레나의 집,『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삼인, 2002, 43쪽.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 휴머니스트, 2022, 85-90쪽.

이임자,『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194쪽; 365-368쪽.

정을병 외,『현장소설: 사건 속에 뛰어든 인기 작가 17인집』, 여원문화사, 1979, 4-5쪽.

홍성철,『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255-289쪽.

우에노 지즈코·아라라기 신조·히라이 가즈코 편, 서재길 역,『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어문학사, 2020, 40-42쪽.

이진경, 나병철 역,『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103쪽; 167-177쪽.

캐서린 H.S. 문, 이정주 역,『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114-119쪽.

논문
김나현,「모빌리티 노동의 정동 —도시 모빌리티와 1970~80년대 '버스 안내양'의 정동—」,『사이間SAI』제3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11-149쪽.
김대성,「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 —1980년대 무크지 운동 재고」,『동서인문학』제45호, 인문과학연구소, 2011, 31-49쪽.
김문주,「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한국시학연구』제37호, 한국시학회, 2013, 83-104쪽.
김성환,「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 —『신동아』논픽션 공모를 중심으로」,『상허학보』제32권, 상허학회, 2011a, 13-61쪽.
_____,「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한국현대문학연구』제34호, 한국현대문학회, 2011b, 359-397쪽.
_____,「하층민 서사와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 —1980년대 논픽션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의 연구』제59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403-442쪽.
김양선,「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 여성문학(사)의 외연 확장과 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여성문학연구』제3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38쪽.
노지승,「1970년대 성노동자 수기의 장르적 성격과 글쓰기의 행위자성」,『서강인문논총』제52호, 인문과학연구소, 2018, 5-41쪽.
박정미,「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한국사회학』제49권 2호, 한국사회학회, 2015, 1-33쪽.
배하은,「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7-127쪽.
안화영,「1980년대 도시하층민소설 연구 —'내부의 난민' 형상과 '난민-시민'을 향한 상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25-47쪽.
오자은,「'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여공 수기와 소설에 나타난 자기 정체화와 문학의 의미—」,『한국근대문학연구』제19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7-52쪽.
유승환,「황석영 문학의 언어와 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56-

173쪽.
이봉범, 「잡지미디어, 불온, 대중교양 —1960년대 복간 『신동아』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7호, 한국근대문학회, 2013, 385-440쪽.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제4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24-254쪽.
최은아, 「1980년대 르포라는 재현 양식과 시대적 의의」, 『구보학보』 제25호, 구보학회, 2020, 171-211쪽.
허선애, 「지식인의 현장이라는 역설: 1970년대 현장소설에 나타난 재현의 (불)가능성」, 『비교한국학』 제30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159-192쪽.
홍성식, 「서발턴에 대한 진실한 기록, 1970년대 르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399-418쪽.

Abstract

Women in Sex Industry Reportage in the early 1980s
– Focusing on *Daughters of Darkness* and *Women for Sale in Seoul*

Ahn Hwa-young, Kim Hyun-joo

This article focuses on two reportage collections, *Daughters of Darkness*(『어둠의 딸들』)(1981) and *Women for Sale in Seoul*(『서울서 팔리는 여자들』)(1983) to examine the changes in narrative perspectives and representations of the sex industry. The collections cover the rapid expansion of the sex industry beyond camp towns and prostitution blocks, while being intertwined with multiple layers such as economic, cultural,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lso highlight groups of women who cross various social borders inside and outside of the sex industr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writers in terms of reporting techniques and narrative styles. While the male writers remained in the role of external observer, Kang Seok-kyung(강석경) and Yoo Jae-soon(유재순) went undercover to the sex industry. Their reportages show complex mixtures of witness account, self-confession, and detached commentar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first-person narrator. Their reportages portray women in the sex industry as agents who devise multifaceted strategies for survival and safety

within violent structures, thereby moving beyond moralistic perspectives and victimization narratives.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two collections report women's shifting positions amid the expansion of the sex industry, as well as the expansion of reportage genre in the early 1980s.

Key words: sex industry, reportage, *Daughters of Darkness*, *Women for Sale in Seoul*, Kang Seok-kyung, Yoo Jae-soon

논문제출 / 2025.07.15.
논문접수 / 2025.07.16.
게재확정 / 2025.08.08.